

##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송 광 성\*\*  
구 정 화

- I. 들어가는 말
- II. 정학·중퇴 청소년의 실태
- III. 정학·중퇴 청소년의 지도 현황
- IV. 정학·중퇴 청소년 대책

### I. 들어가는 말

#### 1. 연구의 필요와 목적

학교는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 및 규범을 교육하는 사회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학교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는 그 청소년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학력이 개개인의 자격증으로 증시되는 사회에서 학교의 중요성은 각별하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중퇴하는 학생의 수가 많다. 작년에 특히 실업

계 고등학생 중 26,216명이나 중퇴했다. 이 숫자는 전체 실업고생의 3.3%에 해당하는 숫자로 100명 중 3~4명의 학생이 중퇴했다는 결론이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모두 합쳐 계산해도 이러한 사정은 비슷하다. 91년 한해동안 전체 학생의 1.7%인 76,213명이 중퇴했다.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학력위주 사회분위기를 생각할 때, 학교 중퇴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좌절과 소외를 느끼게 하는 커다란 사건이다. 학교 중퇴는 이런 개인적 문제뿐 아니라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 한해 절도범의 47.4% 또 강도사건의 51.9%가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통계청, 1990: 350). 이는 1965년 강도사건의 36.6%에 달하던 소년범 비율보다 무려 15.3%의 증가를 보인 것

\* 이 논문은 본원의 1992년도 연구사업인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송광성(연구위원), 구정화(연구원)임.

이다.

청소년 비행에서 중퇴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1년의 15.1%에서 1990년의 19.5%로 늘고 있다. 이에 1985년 국무총리조정실과 문교부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퇴한 후 비행이 더욱 심각해지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의 퇴학징계 절제’를 각 학교에 공문으로 지시할 정도로 중퇴청소년은 시급한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은 비행과 연관된 중퇴청소년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학교 중퇴 후 비행이 심화되는 것은 중퇴생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학교를 중퇴하면 반드시 비행청소년이 되는게 아님에 주목한다. 중퇴청소년 집단에게 공통되는 특성은 ‘비행’이라기 보다 “학교생활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외국의 한 연구 *National Advisory Council*.에서 중퇴생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학교에 대한 부적응으로서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업에 대한 열의와 동기가 미약하다. 또한 앞날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여 학업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약하다. 이 점은비행으로 중퇴한 청소년에게도 해당된다. 이들도 학교생활에 성공하지 못하여 중퇴했고, 그 결과 비행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중퇴생뿐 아니라,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지 못하여 중퇴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대안을 마련해 내고자 한다. 아울러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협받는 또 하나의 집단인 징계생집단도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이다. 이들도 문제행동으로 정학이나 근신과 같은 징계를 경험하나, 그 징계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보탬이 되는지, 아니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협하고 있는지 미지수이다. 분명한 것은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은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정학생이나 중퇴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정학생과 중퇴청소년의 실태 및 지도상황을 조사하여 정학·중퇴청소년의 예방 및 사후지도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학·중퇴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정학·중퇴청소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이유로 그들이 정학·중퇴를 하게 되는지를 찾아 보았다. 또한 정학생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정과 학교 생활이 일반 학생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둘째, 정학·중퇴청소년의 지도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어떠한 지도와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알리고, 학교 안에서 정학이나 중퇴가 결정되는 과정, 그 효과, 사전·사후의 지도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 밖에서 정학·중퇴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셋째, 정학·중퇴청소년 실태와 지도현황의 조사에 근거하여 정학과 중퇴의 예방 및 정학·중퇴청소년의 지도에 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중퇴청소년의 실태와 정학생의 실태를 나누어 조사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했다. 그 방법은 중퇴청소년 3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정학생 52명을 포함한 학생 100명에게 설문지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중퇴청소년은 모두 직업훈련원의 학생이다. 사실 매우 다양한 층으로 구성된 중퇴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연구하려면 각 층에 걸쳐 표집이 고루 이

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중퇴한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찾아 내어도 그 기관이 비협조적이어서 여러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접촉에 성공한 38명만 면접하였다. 한편, 정학생도 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대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정학생들과 면접을 하게 되면 ‘그들의 부정적 경험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면접에 응하게 할 수 없다’는 학교선생님들의 만류로 면접하지 못하고 설문조사만 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정학·중퇴청소년 지도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정학·중퇴 청소년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지면에서도 방치된 채로 있다. 우선 정학·중퇴청소년의 학교안 지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징계규정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전국 각급 학교의 교도주임과 학생주임에게 소속학교의 정학·중퇴청소년 지도현황을 설문조사하고 바람직한 지도 대책을 물었다. 설문조사의 표본 추출은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총괄하여 각 범주 별로 실제 모집단의 인구에 비례하여 ‘한국교육연감’에 기록된 전국의 중·고교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총 436개교가 선정되어 우편설문을 실시하여 교도주임은 155명, 학생주임은 161명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과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표와 같다.

다음으로 학교 밖에서 정학·중퇴청소년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하고자 서울시내의 상담기관에 전화로 정학·중퇴청소년을 위한 지도프로그램 실시여부를 조사하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학·중퇴청소년의 지도대책을 마련하고자 이제껏 진행한 제2·3장의 연구를 기

〈표 1〉 조사대상과 방법

| 조 사 방 법 | 대       | 상    |
|---------|---------|------|
| 면 접 조 사 | 중퇴청소년   | 38명  |
|         | 각급 학교교사 | 50명  |
|         | 상담기관교사  | 5명   |
| 설 문 조 사 | 교도주임    | 155명 |
|         | 학생주임    | 161명 |
|         | 정학생     | 52명  |
|         | 일반학생    | 48명  |
| 문 서 분 석 | 징계규정    | 26개교 |

초로 지도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제시하였다.

## II. 정학·중퇴청소년의 실태

본 연구는 정학·중퇴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학·중퇴청소년 선도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퇴청소년과 정학청소년의 실태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 1. 중퇴청소년의 실태

〈표 2〉에서 시사하는 바는 보호소년의 반수가 넘는 인원이 중퇴자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사회에 방치되면서 비행의 정도가 심각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검찰청자료는 소년범죄자 중 중퇴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흉폭화된다고 보고한다. 81년부터 90년 사이에 소년범죄가 18.7% 증가한 반면, 중퇴범죄자는 무려 53.6%나 증가하였다. 또한 살인을 저질렀던 중퇴생은 81년 31명이던 것이 90년 57명으로 무려 38.5% 증가했다(대검찰청, 1981~1990).

〈표 2〉

보호소년의 학력

| 연 도   | 불취학자   | 재 학 자    | 중 퇴 자      | 졸 업 자    |
|-------|--------|----------|------------|----------|
| 1981년 | 73(3%) | 232(10%) | 1,201(54%) | 682(31%) |
| 1982년 | 50(2%) | 199( 8%) | 1,406(60%) | 670(28%) |
| 1983년 | 47(2%) | 303(13%) | 1,350(58%) | 606(26%) |
| 1984년 | 24(1%) | 338(14%) | 1,598(64%) | 531(21%) |
| 1985년 | 15(1%) | 202( 9%) | 1,609(68%) | 530(22%) |
| 1986년 | 15(1%) | 247(11%) | 1,529(65%) | 553(24%) |

자료 : 장석민외, 1988 : 46의 표를 재구성.

이러한 통계 수치를 참조해 볼 때 중퇴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1) 중퇴청소년의 양적추산

최근에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학생수는 91년만 보아도 중학교는 22,348명이고 일반 고등학교는 27,649명, 실업 고등학교는 26,216명으로 총 76,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생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이다.

〈표 3〉을 보면, 매년 총 학생수에 대한 중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학교 별로 보면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순으로 높은 중퇴율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는 중퇴자의 수가 줄고 있는 형편이며, 일반고도 90년까지 중퇴생 수가 감소하다 91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고는 중퇴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학교 중퇴자의 감소 추세는 국민들의 학력 향상으로 중학교가 거의 의무교육화되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한편 일반고의 중퇴비율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실업고의 중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적성에 맞는 고교진학이 이뤄지지 않고, 실업고 교육과정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다. 이외에도 중퇴의 사유를 살펴보면, 10년 동안에 가사를 이유로 중퇴하는 경우는 줄어든 반면, 가사 이외의 사유로 중퇴하는 학생의 수는 늘고 있는 형편이다.

### 2) 중퇴의 원인

교육통계연감은 중퇴청소년을 중퇴원인에 따라 질병,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중퇴청소년의 수치를 합산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중퇴청소년의 중퇴이유 중 교육통계연감의 '기타'에 해당하는 수치는 91년 전체의 37.5%에 해당하는 점만 보아도 중퇴의 이유를 구체화하지 않고 중퇴문제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장석민(1988)은 가정문제, 학교문제, 친구유희, 건강, 검정고시, 기타 등으로 중퇴의 원인을 〈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막론하고 중퇴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교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이나 친구유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문제는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중퇴생들이 학교에서 긍정적 경험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재학생들이 더 많은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생활지도,

(표 3)

## 중퇴 청소년의 양적추산

(단위 : 명(%))

|             |    | 총 학생수     |              | 제적·중퇴 및 휴학자  |               |              |
|-------------|----|-----------|--------------|--------------|---------------|--------------|
|             | 연도 | 합 계       | 합 계          | 질 병          | 가 사           | 기 타          |
| 중<br>학<br>교 | 81 | 2,573,945 | 30,628(1.2%) | 1,297( 4.2%) | 20,269(66.2%) | 9,062(29.6%) |
|             | 83 | 2,672,307 | 29,070(1.1%) | 1,200( 4.1%) | 19,610(67.5%) | 8,260(28.4%) |
|             | 85 | 2,782,173 | 29,052(1.0%) | 1,257( 4.3%) | 18,884(65.0%) | 8,911(30.7%) |
|             | 87 | 2,567,730 | 28,322(1.1%) | 1,152( 4.1%) | 17,540(61.9%) | 9,630(34.0%) |
|             | 90 | 2,275,751 | 23,568(1.0%) | 2,147( 9.1%) | 12,555(53.3%) | 8,866(37.6%) |
|             | 91 | 2,232,330 | 22,348(1.0%) | 1,749( 7.8%) | 11,491(51.4%) | 9,108(40.8%) |
| 일<br>반<br>고 | 81 | 1,006,313 | 19,692(2.0%) | 927( 4.7%)   | 11,962(60.7%) | 6,803(34.5%) |
|             | 83 | 1,132,239 | 20,904(1.8%) | 832( 4.0%)   | 13,822(66.1%) | 6,250(30.0%) |
|             | 85 | 1,266,840 | 23,913(1.9%) | 919( 3.8%)   | 15,776(66.0%) | 7,218(30.2%) |
|             | 87 | 1,397,359 | 27,022(1.9%) | 1,130( 4.2%) | 17,505(64.8%) | 8,387(31.0%) |
|             | 90 | 1,473,155 | 26,834(1.8%) | 3,220(12.0%) | 14,877(55.4%) | 8,737(32.6%) |
|             | 91 | 1,406,891 | 27,649(2.0%) | 3,195(11.6%) | 14,636(52.9%) | 9,818(35.5%) |
| 실<br>업<br>고 | 81 | 816,726   | 23,396(2.0%) | 983( 4.2%)   | 15,063(64.4%) | 7,350(31.4%) |
|             | 83 | 880,797   | 31,904(3.6%) | 1,500( 4.7%) | 20,625(64.6%) | 9,779(30.7%) |
|             | 85 | 855,962   | 33,973(3.8%) | 1,434( 4.2%) | 21,669(63.7%) | 9,807(26.7%) |
|             | 87 | 840,651   | 29,303(3.5%) | 396( 1.4%)   | 19,307(65.7%) | 9,600(32.8%) |
|             | 90 | 810,651   | 24,641(3.0%) | 940( 3.8%)   | 15,313(62.1%) | 8,388(34.0%) |
|             | 91 | 804,021   | 26,216(3.3%) | 991( 3.8%)   | 15,391(58.7%) | 9,834(37.5%) |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 연보, '81, '83, '85, '87, '90, '91.

(표 4)

## 학교 중퇴의 원인

(단위 : 명(%))

| 내<br>용<br>학<br>력 | 가정문제     | 학교문제      | 친구유흥     | 전<br>강 | 검정고시    | 기<br>타 | 계        |
|------------------|----------|-----------|----------|--------|---------|--------|----------|
| 중 학교 중 퇴         | 24(17.6) | 80(58.8)  | 27(19.9) | 0(0.0) | 2(1.5)  | 3(2.2) | 136(100) |
| 고등학교 중 퇴         | 47(16.7) | 168(59.8) | 42(14.9) | 6(2.1) | 11(3.9) | 7(2.5) | 281(100) |

자료 : 장석민 외, 1988 : 104의 표를 재구성.

진로지도, 상담지도 등이 활성화되어야겠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중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학교문제에  
는 어떤 것이 있는지 <표 5>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표 5〉

중퇴 원인 중 학교문제(1)

(단위: 명(%))

| 내용<br>학력 | 성적불량     | 교칙위반     | 공부가 싫어   | 선생님이 싫어  | 학교에 부적응 | 계        |
|----------|----------|----------|----------|----------|---------|----------|
| 중 학교 중 퇴 | 18(22.5) | 28(35.0) | 26(32.5) | 7( 8.8)  | 1(1.3)  | 80(100)  |
| 고등학교 중 퇴 | 26(15.5) | 50(29.8) | 51(30.4) | 28(16.7) | 13(7.7) | 168(100) |

자료: 장석민 외, 1988: 104

〈표 5〉를 보면 중학교 중퇴는 35.0%가 「교칙 위반」이고, 그 다음 32.5%가 「공부가 싫어서」이며, 22.5%가 「성적불량 때문」이다. 고등학교 중퇴는 30.4%가 「공부가 싫어서」이며, 29.8%가 「교칙위반」, 16.7%가 「선생님이 싫어서」라

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이유중에서 성적불량과 공부가 싫어서는 「성적문제」라는 단일항목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재구성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중퇴 원인 중 학교문제(2)

(단위: 명(%))

| 내용<br>학력 | 성적문제     | 교칙위반     | 선생님이 싫어  | 학교에 부적응 | 계        |
|----------|----------|----------|----------|---------|----------|
| 중 학교 중 퇴 | 44(55.0) | 28(35.0) | 7( 8.8)  | 1(1.3)  | 80(100)  |
| 고등학교 중 퇴 | 77(45.9) | 50(29.8) | 28(16.7) | 13(7.7) | 168(100) |

자료: 〈표 5〉의 재구성

〈표 6〉을 보면 중학교 중퇴의 경우 「성적문제」로 인한 것이 55.0%이며, 「교칙위반」이 35.0%이다. 고등학교 중퇴의 경우는 「성적문제」가 45.9%이며, 「교칙위반」은 29.8%이다. 양쪽 모두 「성적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학교변인 중에서 중퇴의 가장 큰 원인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과 관련이 있다. 만약 이것이 정말이라면 성적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나간 청소년들이 사회의 유혹에 빠지기전에 그들의 진로를 잘 이끌어 주려는 노력만 있다면 그리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2. 정학생의 실태

### 1) 가정생활

가정은 오랜시간 학교에서 지내는 학생들에게는 휴식처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가정생활 전반(대화빈도, 의견존중도, 부모님의 간섭정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도, 가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먼저, 가족구성원들 간의 대화 빈도를 알아보면 <표 7>과 같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징계생이 비징계생보다 가족대화 빈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볼 때,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우리는 식구끼리 대화를 자주한다.”

(단위:명(%))

| 가정형편 \ 징계여부        | 징 계 생         | 비 징 계 생       | 무 응 답        |
|--------------------|---------------|---------------|--------------|
| 매 우 그 령 다          | 4<br>(6.9)    | 6<br>(20.0)   | 1<br>(33.3)  |
| 대 체 로 그 령 다        | 17<br>(29.3)  | 8<br>(26.7)   | 1<br>(33.3)  |
| 보 통 이 다            | 19<br>(32.8)  | 12<br>(40.0)  | 1<br>(33.3)  |
| 대 체 로 그 령 지<br>않 다 | 16<br>(27.6)  | 4<br>(13.3)   |              |
| 전 그 령 지 않 다        | 2<br>(3.4)    |               |              |
| 계                  | 58<br>(100.0) | 30<br>(100.0) | 3<br>(100.0) |
| $\chi^2=7.985$     |               | $df=8$        |              |

## 2) 학교생활

학생들이 가장 오랜시간 활동하는 생활 공간인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인격이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표 8>을 보면, 두 집단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징계생의 경우에 대체로 인격적 대우를 받

지 못한 쪽의 의견이 강한 반면, 징계생은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어쨌든 두 집단 모두가 자신들의 인격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선생님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에서 개개인의 가치관에 미치는 선생님의 영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표 9>를 살펴보

〈표 8〉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격이 존중된다.”

(단위:명(%))

| 가정형편 \ 정계여부          | 정 계 생         | 비 정 계 생       | 무 응 답        |
|----------------------|---------------|---------------|--------------|
| 매 우 그 령 다            | 2<br>(3.1)    | 3<br>(9.4)    | 2<br>(66.7)  |
| 대 체 로 그 령 다          | 3<br>(4.6)    | 6<br>(18.8)   |              |
| 보 통 이 다              | 22<br>(33.8)  | 8<br>(25.0)   | 1<br>(33.3)  |
|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 18<br>(27.7)  | 11<br>(34.4)  |              |
| 전 그 령 지 않 다          | 20<br>(30.8)  | 4<br>(12.5)   |              |
| 계                    | 66<br>(100.0) | 32<br>(100.0) | 3<br>(100.0) |
| $\chi^2=27.481^{**}$ |               | $df=8$        |              |

\*\* :  $P < 0.01$ 

〈표 9〉

“선생님을 존경한다.”

(단위:명(%))

| 가정형편 \ 정계여부         | 정 계 생         | 비 정 계 생       | 무 응 답        |
|---------------------|---------------|---------------|--------------|
| 매 우 그 령 다           | 9<br>(13.8)   | 5<br>(16.1)   | 1<br>(33.3)  |
| 대 체 로 그 령 다         | 20<br>(30.8)  | 8<br>(25.8)   | 1<br>(33.3)  |
| 보 통 이 다             | 16<br>(24.6)  | 13<br>(41.9)  |              |
|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 12<br>(18.5)  | 4<br>(12.9)   | 1<br>(33.3)  |
| 전 그 령 지 않 다         | 8<br>(12.3)   | 1<br>(3.2)    |              |
| 계                   | 66<br>(100.0) | 32<br>(100.0) | 3<br>(100.0) |
| $\chi^2=7.031^{**}$ |               | $df=8$        |              |

면, 정계생들과 비정계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두 집단간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생님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해결자로 여기는가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선생님을 학생들은 문제 해결자로 보고 있는지 알아보자.

〈표 10〉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이 도움을 준다”

(단위: 명(%))

| 가정형편 \ 징계여부         | 징 계 생         | 비 징 계 생       | 무 응 답        |
|---------------------|---------------|---------------|--------------|
| 매 우 그 령 다           | 2<br>(3.0)    | 3<br>(9.4)    | 1<br>(33.3)  |
| 대 체 로 그 령 다         | 11<br>(16.7)  | 8<br>(25.0)   |              |
| 보 통 이 다             | 24<br>(36.4)  | 9<br>(28.1)   | 1<br>(33.3)  |
|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 13<br>(19.7)  | 5<br>(15.6)   |              |
| 전 혀 그 령 지 않 다       | 16<br>(24.2)  | 7<br>(21.9)   | 1<br>(33.3)  |
| 계                   | 66<br>(100.0) | 32<br>(100.0) | 3<br>(100.0) |
| $\chi^2=8.100^{**}$ |               | $df=8$        |              |

\*\* :  $P < 0.01$

〈표 10〉을 살펴보면, 선생님을 문제해결자로 보는지에 대해 징계생들이 비징계생보다 문제해결자로서의 선생님의 역할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문제행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상담하기에는 어려운 존재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선생님을 또한 과중한 수업 때문에 학생들의 개별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각 학

교별로 상담실이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선생님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 III. 정학·중퇴 청소년 지도현황

정학·중퇴 청소년은 정상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청소년보다 다양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상담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그릇된 가치관이나 부정적 자아개념을 극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를 잘하여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진로지도나 학습지도, 기술교육 등

을 통하여 자신의 장래를 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하는 지도는 정학·중퇴 청소년의 실태에서 살펴 보았듯이 ‘징계가 다’라고 할 만큼 징계 위주의 응벌주의적 지도에 치중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응벌주의적 지도가 교육적인가, 비교육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외면한 채 입시 위주의 교육여건 때문에 달리 방도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기도 하고, 문제학생의 행동을 지도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응벌주의적 지도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반문할 때, 응벌주의적 지도가 갖는 비교육적 측면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지도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흔히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용어로 생활지도란 학습지도와 맺구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적 지도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활지도란 *Guidance*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다. 이는 성격상 비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조직과 형식을 갖출 수도 있는 것이다. 일례로 우연한 기회에 아무런 격식도 갖추지 않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학습습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경우, 거기에는 생활지도의 의미가 포함된다. 이와 달리 학생이 자신의 학습습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생활지도 교사를 찾아가서 학습습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얻게 되는 경우, 여기에는 조직과 체계가 선 생활지도가 행해진 것이다.

이러한 생활지도는 20세기에 들어서 대부분 조직적인 운동으로 자리잡았다.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실천을 거듭하면서, 학교의 생활지

도는 직업지도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 및 교육에 관한 제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지도,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정서적 지도, 올바른 종교적 지도 등 생활지도의 범위는 인간의 전생활을 포괄하는 지도 및 봉사로 확대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생활 지도의 의미와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나라의 정학·중퇴 청소년들의 지도현황을 알아보겠다.

## 1. 학교안 지도 현황

정학 청소년의 교내지도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경우 각 학교는 학칙에 따라 거의 유사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사후지도를 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실제 교내의 지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도주임 및 학생주임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학생징계의 기준이 되는 징계규정은 수집이 가능한 학교의 것을 비교 분석하였다.

### 1) 상담지도

(1) 상담실 분리 여부 및 상담자격증 소유 교사 수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담실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교사가 없다면 상담실 운영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 실제 유자격 상담교사가 존재하는가도 중요하다. 각급 학교의 자격증을 갖춘 상담교사수를 알아보면, 전체의 25.8%에 해당되는 학교에 1명, 24.5%의 학교에 2명, 14.2%의 학교에 3명, 13.5%의 학교에 4명, 18.1%의 학교에 그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상담교사가 근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학교 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담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몇몇 학교에서는 자원봉사 학부모들이 주

축이 된 주부상담원의 상담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주부상담원 활용 현황을 알아보겠다.

## (2) 주부 상담원의 활용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152개교 중 43개교(28.3%)가 주부상담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많은 학교에서 주부상담원 제도가 일반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43개교에서 상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 상담원은 51.2%가 5명이하이며, 34.9%가 5~10명으로 대개 10명 이내(8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주부상담원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주부상담원들의 주요 상담내용은 31.7%가 심성수련을, 22%는 대상자에 대한 개별면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결연후원제 등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상담의 경우에 주로 집단상담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상담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는 않지만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은 필히 고려되어야 하겠다. 주부상담원들은 1회 활동에 43.6%가 1시간 이내, 41%가 1시간 이상, 15.4%가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2시간 가량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1·2학년생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시간씩, 한반을 대상으로 주부상담원들이 집단상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로 학생들은 1년에 1회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내용에서도 구체적인 상담이기 보다는 심성 수련과 같은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주부상담원이 정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 (3) 정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부 상담원들이 정학생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그러면 문제학생을 담당하는 교도주임 선생님과 학생주임 선생님은 그들을 위해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먼저 징계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 두 집단을 나누어 물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정학기간 중 지도 그리고 정학이 끝난 후에 하는 추수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이외에도 마지막으로 교외 지도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찬반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해 알아 보았다.

먼저,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이유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징계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 교도주임의 55.8%가 선도가 주된 이유라고 지적하고, 18.7%가 학생신분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반면에, 학생주임의 경우는 징계의 이유를 66.3%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며 21.3%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문제학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일차적으로 징계하고 선도하는 선생님들간에 이러한 의견차이는 문제가 된다.

징계기간 중 학교에서 하는 생활 지도는 규칙적 상담(56.2%), 반성문 쓰기(19.2%), 정학생용 프로그램운영(6.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지도는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 아주 형식적이다.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접해 본 정학생들 대부분의 일과는 아침에 일찍와서 교부실 등의 청소를 하면서 시작된다. 오전 수업시간은 학생부에서 간이 책상과 의자를 이용하여 공부를 하게 하지만 대부분 감독하는 교사가 없어 거의 방치되고 있다. 점심 후의 오후 수업시간이나 상

담교사가 수업이 빌 경우를 이용하여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이 정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반성문을 쓰고 자신의 도장을 찍고, 담임, 교도부, 학생부, 교감선생님의 도장을 찍고, 집에 가서 확인 도장을 찍게 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정학을 위한 학교의 지도는 현실적인 여건상 잘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정학을 위한 외부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도주임의 72.2%, 학생주임의 72.0%가 찬성한다고 대답하여 두 집단 모두 외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프로그램에의 참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까닭은 위에서 보듯이 현실적인 여건상(대부분의 교사가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학을 특별히 둘 볼 담당교사가 실제로 없다) 교내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 징계지도

### (1) 징계규정

각급 학교들의 징계규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77조(징계)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7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학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퇴학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각급 학교의 학칙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행동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교육법시행

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행학생과 학교에 흥미를 잃은 장기결석자간의 근본 동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징계규정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결석자의 경우에 그들을 학교에서 내몰아 버릴 것이 아니라 학교에 흥미를 기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던가 아니면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자립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정의 분류에 있어 유사한 문제행동을 세분화시켜 나열하고 있다. 징계규정을 세분화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징계대상이 되는 문제행동 범위가 커진다는 것이다. 셋째, 문제행동 중에 흡연, 음주를 한 학생에 대한 규정의 경우는 처벌 보다는 전문적 선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분드, 환각제 등을 복용한 학생의 경우는 징계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으로 격리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징계종류

징계유형은 학생의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나누어진다.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이다. 이외에 혼제(혹은 설유, 견책), 학교봉사 및 퇴학보류 같은 징계는 학교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징계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면, 근신의 경우는 문제행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징계로 교실수업에는 참여하되 반성문을 쓰거나 학교봉사 등의 벌을 받는다. 다음 수준의 징계는 정학인데, 정학은 문제행동에 대해 일정기간 학생이 근신하면서 반성하도록 하는 징계이다. 정학의 경우에,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집에 있도록 하거나 등교는 하지만 수업에는 참석치

못하게 하는 벌이다. 정학의 종류는 기간의 장단에 따라 유기정학 무기정학으로 나누고 있다. 유기정학의 경우는 무기정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계기간이 짧다. 각급 학교는 정학을 반복해서 받는 학생에 대해 퇴학의 처분을 내리거나 자퇴(명령퇴학)를 권유하고 있다. 퇴학은 교육법시행령 제 77조에 해당 항목을 지정하고 있으나 각 학교별로 융통성있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각급 학교에서 지정하고 있는 징계를 살펴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징계종류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 징계를 당하는 학생간에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급 학교간에 징계유형의 통일성이 시급하다. 둘째, 징계가 문제행동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있어 선도차원보다는 처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선도의 차원이라면 어떤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징계유형을 규정하기보다 훈계를 하고 다음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근신처분 등을 하여 학생이 문제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징계규정상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 2. 학교밖 지도 현황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학교에서 하는 청소년 선도는 주로 징계에 치우쳐져 있다.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교내 선도의 전부가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징계' 그 자체가 선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징계를 경험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북돋는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문제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쏟아야 하는 노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폭넓고 인내심 있게 경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학생의 주요한 선도방안은 정학기간 중 반성문 작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정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도교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하는 등 징계학생의 교내 지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다분히 형식적인 선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학생주임 교사나 교도주임 교사의 말을 인용해 보면 교내지도의 형식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학교에서는 내 힘도 모자르고,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여건 때문에 징계학생의 지도가 활발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손이 미치지 않는 아이들을 위탁교육할 만한 외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선생님은 교내의 부적절한 선도여건 때문에 교외선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형식적인 교내선도 이외에 이를 보완할 교외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징계학생에 대한 지도를 해나가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대안에 따라 선도자원의 확보와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교외 선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징계학생을 지도할 방안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 1) 정학생을 위한 지도

학교는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지도할 교육적 사명을 가진 곳이다. 이런 까닭에 징계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라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건전하고 자율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노력이 학교를 중심으

로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 일 것이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 징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치되는 여건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학교는 징계 이상의 지도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이 학교 밖에서 경주되고 있는가? 만약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본 연구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학교 밖의 각종 민간상담기관들과 경찰서나 시청이나 도청 및 구청에 소속해 있는 상담실 등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 거리를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기관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나 이들 중 정학생을 위한 지도를 행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서울 시내에서 현재 약 다섯 곳의 상담기관이 정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다섯 곳은 동부아동 상담소의 ‘늘 푸른교실’, 적십자가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그리고 목동청소년 회관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 청소년상담연구소의 집단 상담, 청소년 대화의 광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일정한 상담의 기법이 축적되어 있고, 재정여건이 다른 상담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상담가들의 자체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이지만, 상담기관의 집단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참여자 자신에게 무척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학생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상담기관의 수용 능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되겠으나, 학교 측의 무성의와 지도 방기가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가 오죽 못났으면 제 학생들을 밖으로 돌려” “만약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

가지나?” 이 두가지 말은 현재 학교와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학교 측이 상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또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만큼 상담기관이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뭘 믿고 애들을 맡기나?” “상담기관이라면 만사능통이야?”라는 식의 대응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 측에서는 교내의 정학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상담기관도 상담을 강력히 권유할 공신력도 갖고 있지 못해 정학생은 학교 밖 지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2) 중퇴청소년을 위한 지도

학교에서 방출된 중퇴청소년에게 사회에서는 그들의 계획을 묻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있는가? 사회로 방출된 중퇴청소년은 사회에서도 자신을 실현할 만한 기회를 얻기 위한, 특히 중퇴청소년을 위한 지도를 전담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 그들이 부딪힌 문제를 명료화 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단 희망의 집 청소년 상담소 한 곳에서 전화상담 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취업알선까지 하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중퇴청소년 지도는 아닐지라도 상담기관 종사자의 개인적 노력 여하에 따라 중퇴청소년에 대한 지도, 즉 진로상담이나 취업알선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더욱 요구되는 지도는 비공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것이다. 중퇴청소년의 지도를 분명히 표방하고 체계적으로 중퇴청소년을 지도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러나 우리가

회에서 중퇴청소년의 지도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은 없다. 단지 비행을 저지른 중퇴청소년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제도 하에서 수강명령 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제 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력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직업훈련원에서 소수의 중퇴청소년이 자신의 포부에 따라 내일을 준비해 가고 있을 뿐이다.

#### IV. 정학·중퇴청소년의 대책

앞에서 정학·중퇴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 보면서 그들을 잘 보살피는 일이 사회의 커다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학생청소년들이 정학이나 중퇴라는 중요한 사건을 겪게 되는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제 학생 청소년들이 정학이나 중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중퇴하게 되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중퇴 예방과 중퇴 후 대책을 학교안 대책과 학교밖 대책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학교 중퇴문제는 학교밖 요소 즉 가정문제, 노동시장, 친구관계, 사회보장기관, 사법제도 등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상당히 오랜기간 모여 있는 유일한 장소인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므로 학교안 대책, 즉 예방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1. 학교안 대책

정학·중퇴청소년에 대한 학교안 대책이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어 적응하게 만드는 일이다. 집이 가난하든가,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가, 성적이 나쁘든가,

건강이 좋지 않든가, 학교가 집에서 멀든가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도와서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여 정학생이나 중퇴생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학교나 선생님은 학교밖의 가정이나 사회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해도 학교안에서 학생들이 불평하는 일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없애고 이상적인 환경, 즉 통합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청소년 교육에 관련된 학교밖 여러기관들 즉 가정,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기업체 등이 학교와 밀접히 연결되어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 즉 교육부, 교육구청, 교장, 교사, 학생들이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 협동하는 개방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지금의 문제있는 교육환경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 1) 학교제도 개선

###### (1) 상담활동의 활성화

학교상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상담자원봉사제를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 ① 행정적지원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도주임을 더 많이 임용하고 상담실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와 43조는 상담실의 설치 의무에 관한 조항인데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시행령에서 상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조건을 중학교는 현행 18학급 이상에서 12학급 이상으로, 고등학교는 현행 18학급 이상에서 9학급 이상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상담실에는 꼭 교도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

를 배치하고 교도교사전 단계를 실시해야 한다. 교도교사 자격을 따는데 현행 경력순을 지양하고 전공과목을 참작하며 능력과 자질을 기준 삼아야 겠고, 교도교사 보수를 개선하는 한편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1년에 한번 이상 연수를 받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업무부서에서는 상담전공 자격을 가진 장학사를 확보하고, 각 연구원이나 교육청의 상담업무담당 장학사, 교장, 교감이 회의를 할 때 상담업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상담실 운영비 지원을 강화해야겠다.

### ② 상담 자원봉사제 활용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기타 지원자 중에서 사명감, 자질, 거주지역, 연령 등을 참작하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필요한 연수를 시킨 후에 각급 학교에 배정하여 활동케 한다. 신규 교육시 자원봉사자는 상담교사의 보조자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고,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기법을 익히는 등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자원봉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유대 강화를 위한 모임(상담사례 발표, 월례회의 등)을 적극 지원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격관리 방안(포기자나 휴식자에 대한 관리 철저)연구를 추진한다. 그때 그때 야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성문제, 약물남용, 정신위생, 가출 등)에 대한 상담기술지와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쓴다.

### (2) 징계과정의 합리화

무기정확이나 퇴학이라는 학생처벌은 중퇴청소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교육에서 처벌이 가지는 순기능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처벌위주의 교육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한 방황의 시기에 있다는 점에서 어떤 과오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므로 처벌위주의 교육은 시

정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학생이 억울하고 부당한 벌을 받을 경우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의감이 크게 훼손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현행 징계과정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징계를 합리화시키는 일은 중퇴청소년 발생을 미리 막는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① 사전접수의 자의성

학교의 징계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억울해하는 경우는 대략 세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잘못이 없는 데도 벌을 받는 경우이며 둘째는, 남과 같이 잘못을 했는데 자기만 벌을 받는 경우이며 셋째는,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과중한 벌을 받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두번째의 경우이다. 실지로 이런 경우가 가장 빈번히 발생해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학생들이 교사의 차별대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장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처벌 규정과 처벌과정이 요구된다.

#### ② 학생 징계기준표의 비현실성

서울 시내 K중학교의 규정집에는 무단가출한자, 학교시설 또는 기재를 고의로 파손한자는 무기정학이고, 무단결석 3회로 제적예고 후 계속 무단결석한자는 퇴학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같은 기준은 무단가출, 무단결석, 학교시설의 파손 등을 엄히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너무 가혹해서 비현실적이다.

또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징계기준표가 학교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따라서 문제행동의 경중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입각해 징계를 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 ③ 학생진술권의 부재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주임교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징계받을 학생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선도계의 사전개요 설명과 담임선생님의 참고 발언에 의해서 사건을 판단한다. 물론 이런 방법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말로만 듣던 때하고 사건 당사자를 직접 접했을 때의 상황 판단은 많은 차이가 있다. 징계위원회에 학생의 진술을 허용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억울한 판단을 줄일 수 있고, 비록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학생피의자에게는 최선을 다했다는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진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④ 소원제도의 불비

선도위원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벌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학생 징계제도에는 이러한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원위원회를 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 (3) 교사의 상담역할 강화

그동안 학교에서는 지적인 교육에 치중하느라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발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가 많은 때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아의식이 강해지는 때인데, 대부분의 중학생은 자신감이 없거나 소외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무시할 때 소외감을 느끼는데, 학생청소년은 우선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에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학교에 와서는 선생이나 동료학생들에게 무시당하게 되면 소외감은 강화되어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중퇴예방

대책에서는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나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른들과 연대감을 느낄 때라고 하는데, 학생은 선생과 연대감을 가질때에 학교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또 한편 선생님도 학생에 대해서 연대감을 가져야 하는데, 한반에 학생이 너무 많거나 수업시간표가 너무 빡빡하게 짜여지는 등 작업 환경이 나빠서 학교에 대한 귀속감이 약할 때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중퇴 예방을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부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즉 학교교사가 학생의 자부심을 북돋우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은 배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그 학생의 생활 전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2. 학교밖 대책

현재 학교중퇴생을 위한 학교밖 대책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학교에서 나온 이후 그들의 삶을 지원하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 다만, 중퇴생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원에 가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 정도이다. 중퇴생에 대한 학교밖 대책 또는 사후 대책의 시작은 중퇴생을 발생시킨 학교가 책임지고 나서서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교 밖 대책은 사실 학교와 완전히 분리되어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이러한 기본 생각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중

퇴생 지원 대책을 알아보려 한다.

### 1) 사회적 지원체제 확립

현재 학교 중퇴생의 진로에 대해서는 가정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는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가 사람 기르는 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이런 지원이 안되는 현실이므로 현재의 사회적 여건을 이용해서 사회적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 회관이나 청소년 상담기관이 산재해 있지만,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특색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시·도 별로 몇 군데를 선정하여 중퇴생 전용 상담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면, 각 청소년 관련기관에 중퇴생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담기관이 형성되면, 이를 위한 상담요원을 재교육하여 그 지역의 중퇴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로 중퇴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그들을 진단 분류하고, 부모와 협의한 후 소견서와 함께 해당기관에 지도의뢰하도록 의무화한다. 진단분류는 본인의 희망, 학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취업, 직업훈련원, 행동교정, 정신치료, 요양 등 학생의 필요에 따라 상세히 구분한다.

중퇴생의 사후지도를 위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고 필요시엔 유관기관(동사무소, 경찰서, 직업훈련기관, 청소년단체, 정신병원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협조체제를 확립한다. 학교는

각 기관에 지도를 위임한 중퇴생들의 지도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각 기관과 의무적으로 협력하게 한다. 학교로부터 중퇴생의 지도와 보호관리를 요구받은 해당기관은 이들을 인계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 관련기관은 매년 이러한 중퇴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와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한다.

### 2) 직업학교 및 직업훈련 지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원래 학교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사회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후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직업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현재 활용 가능한 것은 직업학교와 직업훈련원인데, 직업훈련원의 경우는 사실상 중퇴생을 위한 지원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직업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지원 방법은 직업훈련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1) 직업학교의 현황

직업학교는 1990년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로 전국에 7개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심각하게 부족한 기술인력의 보급과 인문계 고졸 재수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직업반 학생들에게 1년간 위탁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다.

직업학교는 인문계고교에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로 구성하는 고3직업반 학생들을 위탁 교육하는 곳이다. 이들이 이 학교를 통해 습득한 기술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맞본 낙오자의 오명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배우는 것은 기술 그 이상의 것으로 자신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일생

의 교훈으로 삼을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우는 것이다.

### (2) 중퇴생을 위한 개방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의 직업학교는 인문계 고3을 대상으로 하여, 중퇴의 예방적인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중퇴를 경험한 학생들에게는 폐쇄적인 공간이다. 일정한 기간 사회적 지원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에 직업준비를 요하는 중퇴생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직업학교가 적절하다고 하겠다.

취업 준비를 원하는 중퇴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기간 교육을 시킨 후에, 그 학생의 기존학교에서 졸업장을 주는 것이 중퇴로 인한 파생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직업학교는 사회지원 상담원과 기존학교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그 학생이 직업학교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에도 취업 알선을 해야 하며, 이때도 취업된 곳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학생이 취업 후 직장이 자신의 희망과 맞지 않을 경우 상담원에선 재상담을 실시하고, 직업학교에선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완전히 가정, 기존학교, 사회지원센터, 직업학교, 직장이 연결되어 중퇴생을 보호·지원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문제가정 돕기

“문제청소년”은 “문제가정”에서 생긴다는 말처럼, 부모자신이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야한다. 요즘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일을 위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인지,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 부

모와 상담하는 일이 상당히 적어졌고(15%), 중퇴생의 다수가 형제 자매사이나 부모사이의 갈등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라고(63%) 불평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가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관련서적도 많이 나와 있어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이 학교를 중퇴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므로 빈민 가정 특히 결손가정이나 소년 소녀 가정이 있는 점에 대한 가정복지 사업을 강화해야겠다. 경제적 빈부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므로,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학자금 면제로는 완전히 구제받기가 어려우므로 그 대상과 비용이 좀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 4) 유흥업소 청소년 취업 방지

본 연구팀이 실시한 중퇴생 면접조사에서 중퇴생들은 학력과 기술수준이 낮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려워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요즘 근로자들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자리를 싫어하는 현상과 사회일반이 향락을 추구하는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많이 생기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기존의 노동력으로는 부족하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은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준호의 「중퇴생 범죄화 과정에 대한 연구」(1992)에서도 다른 직장보다는 유흥업소에 취직한 청소년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유흥업

소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퇴생을 위한 학교밖 대책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1) 청소년들이 유혹업소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다.

① 학력위주의 사회와 그에 따른 공부에 대한 중압감

금년도 전기대학 지원율을 보면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줄어 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학력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고 있으며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본질적으로 「저능한 인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더 나아가 고등학교만 졸업하여도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를 비롯한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4년제 대학에 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② 전전한 놀이문화의 육성과 퇴폐향락의 풍조의 근절

70~80년대의 경제성장 및 정치적 혼란은 물질만능 풍조와 퇴폐향락적인 문화를 배태하였다. 쉽고 부정하게 번 돈은 쉽고 부정하게 쓰여지기 마련이다. 땅투기, 증권투기, 더 나아가 정경유착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퇴폐향락문화는 극에 달하였다. 학교주변에도 버젓이 유혹업소가 들

어서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업소들이 산재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정 및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반하여, 우리사회에는 오히려 자극하고 있는 요소들이 판을 치고 있다. 어른들이 만든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작태가 근절되지 않고는 청소년들이 유혹업소에 대해 느끼는 유혹을 단절할 수는 없겠다.

(2) 위와 같은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비록 미봉적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청소년을 취업시키는 유혹업소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 이전에 자기의 자녀와 같은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어른들의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② 유혹업소에 취업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불이익을 청소년들에게 홍보한다. 가출을 한 뒤 유혹업소에 취업한 여학생들의 기록을 보면, 유혹업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은 생계를 위해 취업한 뒤 유혹업소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알고는 후회를 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TV 등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유혹업소의 실체를 알리는 동시에 소책자 등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유혹업소의 실상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유혹업소에 취업한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강원근(1979), “학생의 상벌 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1981~1991), 교육통계연보.

김남덕(1988),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교회프

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S소년원 사례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우중(1991), 학부모와 청소년—건강한 다음

- 세대의 이해와 지도—, 구미출판부.
- 김정명 외(1989), 요지원 무직 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 연구원.
- 김호균(1983), “소년범죄의 예방책에 관한 연구—민간인 자발 참여방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동석 외(1991), 가출청소년연구—청소년과 부모의 대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원(Roberts A. R., Runaways and Non-Runaways).
- 대검찰청(1981~1990), 범죄분석.
- 박성주(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분자(1985), “비행청소년의 사회교육 요구분석—소년원생의 교육내용요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1985), 제 3회 청소년 선도대책 세미나.
- \_\_\_\_\_ (1990), 청소년범죄연구.
- 서울보호관찰원(1992), 보호관찰현황
-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1991), 동부아동상담소 상담사례연구집, 제2호.
-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1987), 사랑의 교실을 통해서 본 청소년비행 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2), 1991년도 학생상담자원봉사자활동보고서.
- \_\_\_\_\_ (1991), 학생폭력,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 \_\_\_\_\_ (1990), 학생 생활적응 지도방안—장기 결석 학생을 중심으로—.
- 송광성 외(1991),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청소년연구원.
- 심영희(1987), 비판범죄론—일탈과 통제의 분석, 법문사.
- 안재정(1988), 비행의 전조와 예방, 청소년선도총서 4, 복지문화사.
- \_\_\_\_\_, 비행청소년의 선도, 청소년선도총서 5, 복지문화사.
- 윤성은(1986), “사회계층이 청소년비행 및 처벌에 미치는 영향—통제의 선택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덕, 정원식(1984),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임제순(1988), “청소년 선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상희 (역)(1986), 일탈의 사회학, 경문사 (Liska, A. E., Perspective on Deviance).
- 장석민 외(1988), 중퇴 및 미진학 청소년의 진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청소년육성위원회(1989), 청소년백서.
- 체육청소년부(1991), 청소년백서.
- \_\_\_\_\_ (1991), 체육청소년통계연보.
- 최윤진 외(1990),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I)—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의식조사—, 한국청소년연구원.
- 표갑수(1992), “학교중퇴자의 중퇴원인과 대책”. 미발표 논문.
- 한국청소년연구소(1985), 청소년 관계 자료집, 제2집.
- 한국청소년학회(1991), 1991년도 청소년학대회 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형사정책연구, 제2권 3호.
- 한준상(1989),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 연세대학교출판부.
- 홍준기(1976), “고등학교학생의 일탈행위 분석—학생처벌을 중심으로—”.